

전북교육청, 2026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 대입 정시 전망 안내

국어 영역, 정시 전형서 큰 변수

국어 영역이 정시 전형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문성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1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학년도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분석과 대입 정시 전망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수학 영역이 전년도 수능대비 체감 난도가 높아 표준점수 만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탐구의 체감 난도는 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정시 지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탐구는 5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원점수 만점자가 얻은 국어 표준점수가 139점, 수학 표준점수가 140점이었다.

올해는 국어·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만점이 각각 147점, 141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만점은 전년도보다 8점이 높아져 국어 영역이 정시 전형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됐던 영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4%(25학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문성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사진 오른쪽)은 1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학년도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분석과 대입 정시 전망을 안내했다.

“국·수 영역, 전년도보다 체감 난이도 높아

탐구 영역 체감 난이도, 과목 따라 큰 차이”

대입 정시 지원전략 입시설명회 등 내달 진행

도 1등급 비율 6.2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능 최저충족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탐구 영역은 각 대학이 수능 필수 응시과목 제한을 풀면서 자연계 중위권 수험생의 ‘사탐편’ 현상이 나

타났다. 수험생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체감 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회문화의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71점(25학년도 66점), 생활과

윤리의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70점(25학년도 77점)으로 예상돼 사탐과 과탐 간의 표준점수 유불리보다 과목 간 격차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성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올해 다양한 대입 이슈가 있었던 만큼 본인의 성적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후 정확한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대입전형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수시 대학별 고사 등에 적극 응시하고, 수시 모집인원 이월 등으로 인한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2월 20일 초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22일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진학상담을 진행한다.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는 12월 22~29일 평일 오후 4시~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대면상담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www.jbc.go.kr/jnro>)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폭 이력 지원자 ‘불합격’

작년 입시에서 수시 4명 등 총 5명 ‘탈락’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실기까지 반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입시 결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된 지원자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4명, 정시모집 1명 등 총 5명이었으며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입시에서 더 강화된다.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된다.

이에 전북대는 기존 학생부종합·정

시 전형 외에도 수시 학생부교과 전형과 예체능 실기전형까지 반영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감점 기준을 세분화했다.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량 감점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불이익이 부과된다.

안정용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엄정히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수소경제 선도 거점 도약 기술협력 확대”

이흥기 우석대 산학부총장,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초대 회장에

이흥기 우석대 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18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흥기 부총장은 지난 17일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열린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전북수소산업협의회는 이날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AI 기반 수소기술 개발과 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정책협력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의 수소산업 혁신 전략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흥기 전북수소산업협의회장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흥기 전북수소산업협의회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에는 1994년 부임해 2008년부터 산업지원부가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총괄하며 한국수소 산업의 설계도를 직접 제시했다. 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연료전지 기술위원회(TC 105) 의장직도 수행하며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를 총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발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맞손’

전북대, 농진청과 협약 체결

첨단융합 R&D 등 공동 활동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18일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이승돈 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과 농촌사회 등 다학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R&D 협력을 강화하고, AI와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농생명 소재 등 공공데이터와 첨단 연구시설, 자원 등도 공동으로 활용하여 첨단산업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운영을 비롯한 첨단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지역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전북대학교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사진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가진 우수 인프라와 농촌진흥청의 농생명 연구 역량이 만나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를 열어가길 출발점”이라며 “지

역의 산업지형을 혁신하는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돈 청장은 “전북대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이 농업현장에 확산되고, 대학생들이 농생명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지전대,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기관’ 선정돼

전주지전대학(총장 조희천) 치유농업사업단이 호남 권역에서 유일하게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전주지전대학 치유농업사업단 및 치유농업과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안정적 운영,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임상 실습 기반의 전문성, 지역사회·치유농장과의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오며 국가 치유농업 정책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전북 14개 시·군 치유농장, 전남·광주·제주 지역 치유농장, 전주보훈요양원 등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편마비 재활 프로그램, Vitalmage 기반 정서·생리 평가 실습, 귀농귀촌 교육, 고품종·장애인·아동·학령기 대상 실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농생대, AI 시대 여는 미래농업기술 비전 제시

농생대·농업기술과학원 공동 ‘AI 기반 디지털 농업 아카데미’

예비 농생명 전문가들의 AI·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추병길)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와 공동으로 18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JBNU AI 기반 디지털농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과 청년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미래 농업의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아카데미는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 중 지역상생 핵심 프로젝트인 ‘JUIC-Triangle’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농업의 이해’와 ‘미래 두 개의 세션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세션인 ‘디지털농업의 이해’에서는 전북대 김태곤 교수와 운영담당 교수가 각각 ‘농업데이터의 이해’, ‘작물 모델링의 개념 및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산업계 전문가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론과 실무를 융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농업의 미래’에서는 농업위성센터 및 슈퍼컴퓨팅센터 전문가들이 ‘농업위성 기반 미래

농업 활용’, ‘슈퍼컴퓨터의 이해와 응용’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농업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추병길 학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지역의 농업 인재들이 AI 기반 디지털농업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은 물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농업 교육·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AI 기반 농생명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에게는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부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헌법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치 이해

전북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

헌법 31조 등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 다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치명자산산지 평화의전당에서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뤘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첫 IB DP 연합 리퀘스트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서… 도내 9개 IB 학교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IB DP(고등학교 과정) 연합 리퀘스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리퀘스트 워크숍은 학교와 교육청이 필요한 과목·주제를 제안하고, 국제 바칼로레아기구(IBO)가 이를 승인해 공식 연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이 IBO에 직접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북만의 대규모 연합 연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연수에는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양현고, 지평선고, 순창고, 자유고, 백산중, 용복중, 화산중 등 도내 IB DP·MYP 후보학교 교사 79명을 비롯해 각 과정을 담당할 워크숍 리더, 워크숍 운영을 주도한 필드랩, 코디네이터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개별 학교 단위 연수가 아닌 전북 IB 학교 간 연합형 워크숍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간 수업·평가 사례 공유, 공동 과제 논의,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와 문화 △언어 습득(영어) △생명과학(생물) △화학 △물리 △수학 분석과 접근(수학) △소논문 등 7개 과정이 운영됐다.

과목별 수업 설계, 평가 기준 이해, 탐구 활동 지도 전략 등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수업이 진행됐다.

특히 교과·코어 과정(소논문)을 동시에 개설한 이번 워크숍은 전북 교원들의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 /장은성 기자